

위기에도 강했다... 반도체 보릿고개 닫고 '실적 새 역사'

현대차·기아

현대차, 영업익 7년 만에 '최고치' 기아, 영업익 1.5조... 925% 경증 신차 확대, 국내외 판매 증가 기인

반도체 수급난 당분간 지속 전망 수요 회복세에도 불안요소 상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실적)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등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는 국내외 판매량 증가와 신차 출시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3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부품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8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5%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2014년 2분기(2조 872억원) 이후 7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6.2%로, 2016년 2분기(7.1%) 이후 19분기만에 최고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7% 증가한 30조 326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현대차 분기 매출이 3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부문 매출이 24조 6742억원, 금융 및 기타 매출이 5조 6518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도매 판매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을 상쇄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매출 원가율은 작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아진 81.1%를 나타냈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1.6%포인트 낮

아진 12.7%였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 5020억원과 1조 9826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영업이익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와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 속에서 판매 물량 증가와 수익성 중심의 판매로 회복세를 이어갔다"며 "판매 믹스는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의 판매 회복으로 소폭 악화됐으나,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한 103만 1349대(국내 20만 682대, 해외 83만 667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한 반면 해외 판매가 73.6% 급증했다.

하지만 3분기에도 이같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의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은 다수 완화됐지만 일부 품목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사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물량 확보에 집중하겠지만 하반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3분기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글로벌 재고 부족 등도 부담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며 상반기에 7만 대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75만 4117대를 판매해 연결기준 매출액 18조 3395억원, 영업이익 1조 4872억원, 경상이익 1조 8377억원, 당기순이익 1조 342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했던 전년 기준 효과에 쏠렌토, 카니발 등 고수익 RV 모델과 K8 등 신차 판매 확대 영향이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61.3%, 영업이익은 RV 중심 판매로 인한 제품 믹스

개선과 고수익 신차 판매 확대 등으로 924.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분기 기록을 세웠다.

기아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속에서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수요 급등과 고수익 신차 판매 확대를 통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확대 추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과 관련해 코로나19 기저효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시장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3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신형 스포티지와 3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첫 전용 전기차 EV6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판매실적으로 이어가 RV 명가이자 친환경차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철강 만형' 실적 기염... 영업익 첫 2兆 돌파 "소사업 다 잘했다" 매출·영업익 최대 실적

포스코

영업익 2조 2006억... 분기 최대 실적 車·조선·건설 등 주력사업 실적 견인 글로벌인프라·신성장부문 등도 호조 철강 수요 회복세에 하반기도 '맑음'

국내 철강업계 만형 포스코가 올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포스코는 22일 2분기 기업설명회를 열고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조 20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3.3% 증가한 18조 2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1조 8070억원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실적으로는 포스코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 분기 실적을 공개한 2006년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이다. 별도 기준은 2010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별도 기준 매출은 9조 2770억원, 영업이익은 1조 6080억원, 순이익은 1조 3180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실적 호조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본업인 철강 사업이 이끌었다. 철강부문은 글로벌 철강 시장 개선과 수요산업 회복 등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량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크라카타우포스코, 장가항포항불수강, 포스코마라 슈트라 등 해외법인 실적도 큰폭으로 개선됐다.

글로벌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 및 석량소재 트레이딩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신성장부문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잠정)이 2조 6800억원으로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공식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모습. /뉴시스

양극재 판매가격 상승 등 이차전지소재 사업 영업이익 확대 등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차입금 대비 EBITDA(Debt to EBITDA)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등급 부여시 대표적으로 고려하는 채무상환 능력 판단 지표다. 포스코 및 그룹사의 글로벌 본드 등 사채 상황과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모두 전분기 대비 각각 0.4배, 0.3배 하락한 1.9배, 1.0배를 기록했다. 또한 부채비율도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모두 전분기 대비 각각 4.2%p, 1.5%p 하락했다.

포스코의 실적 호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철강 제품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철강재 공급 부족은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작아서다. 시장에서는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였던 2008년의 7조 17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친다.

/양성운 기자 ysw@

네이버

매출 1조 6635억... 5개 분기 증가 영업이익 3356억, 전년비 30% ↑ 전사업 호조, 4개 신사업 폭풍성장 커머스 등 하반기 사업도 '장밋빛'

네이버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치플랫폼(검색엔진), 커머스, 핀테크 등 모든 사업분야의 성장이 영향을 준 결과다. 하반기부터는 스마트스토어 당일배송, 글로벌 IP(컴퓨터의 주소)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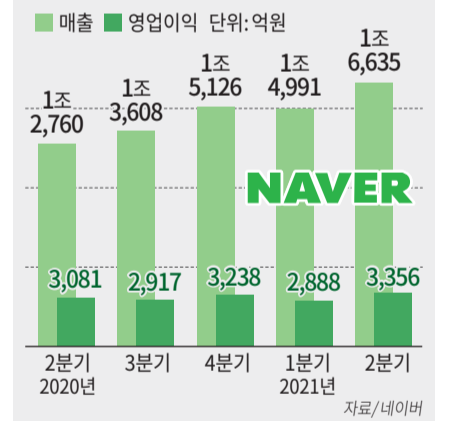
네이버는 2021년 2분기에 영업수익(매출)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1조 663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분기 매출 성장률은 5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주식보상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8.9%, 전분기 대비로는 16.2% 증가한 3356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영업수익은 ▲서치플랫폼 8260억원 ▲커머스 3653억원 ▲핀테크 2326억원 ▲콘텐츠 1448억원 ▲클라우드 949억원 순이다. 특히, 서치플랫폼 외 4개 신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를 첫 돌파하며 사업 다각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냈다.

서치플랫폼은 검색 품질 개선과 광고 효율 증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8%, 전분기 대비로는 9.7% 증가한 826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성과형 광고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디스플레이 매

네이버 분기별 실적



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커머스는 브랜드스토어 확대 및 SME(중소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2.6%, 전분기 대비 12.6% 증가한 3653억 원을 기록했다. 브랜드스토어는 450여개로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5배 성장했고, 쇼핑라이브 매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국내 최대 SME 기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 성장했다.

핀테크는 외부 제휴처 확대 및 기존 제휴 성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1.2%, 전분기 대비 11.0% 증가한 2326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한 9.1조원이다.

하반기에도 네이버의 성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커머스 분야에서는 CJ대한통운과 손잡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당일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탄탄한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에서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